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한옥 현재화를 향한 정부 사업



이강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1. 21세기 초 한옥의 재조명

“한옥에 살고 싶다”라는 명제가 사회를 품미한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매스컴에 한옥이 소개되고 그것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체험담이 블로그를 통해 재생산되었으며, “한옥이 돌아왔다”, “한옥에 살어리랏다” 등 세련되게 정리된 한옥에 관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옥 붐은 절정에 달한 것 같다. 2008년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42%의 국민이 한옥에 살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고 하니 과히 열풍이라 할만하다.

한옥은 글로벌 시대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가 아시아로 수출되면서 평가받기 시작한 한국 문화 열풍은 2002년 월드컵 신화를 계기로 증폭되었고 놀라운 성과의 본질을 찾아내려는 시도들은 전통문화로 눈을 돌렸다. 한글의 우수함, 한복의 우아함, 한식의 정갈함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한옥의 가치가 상승했다. 한옥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은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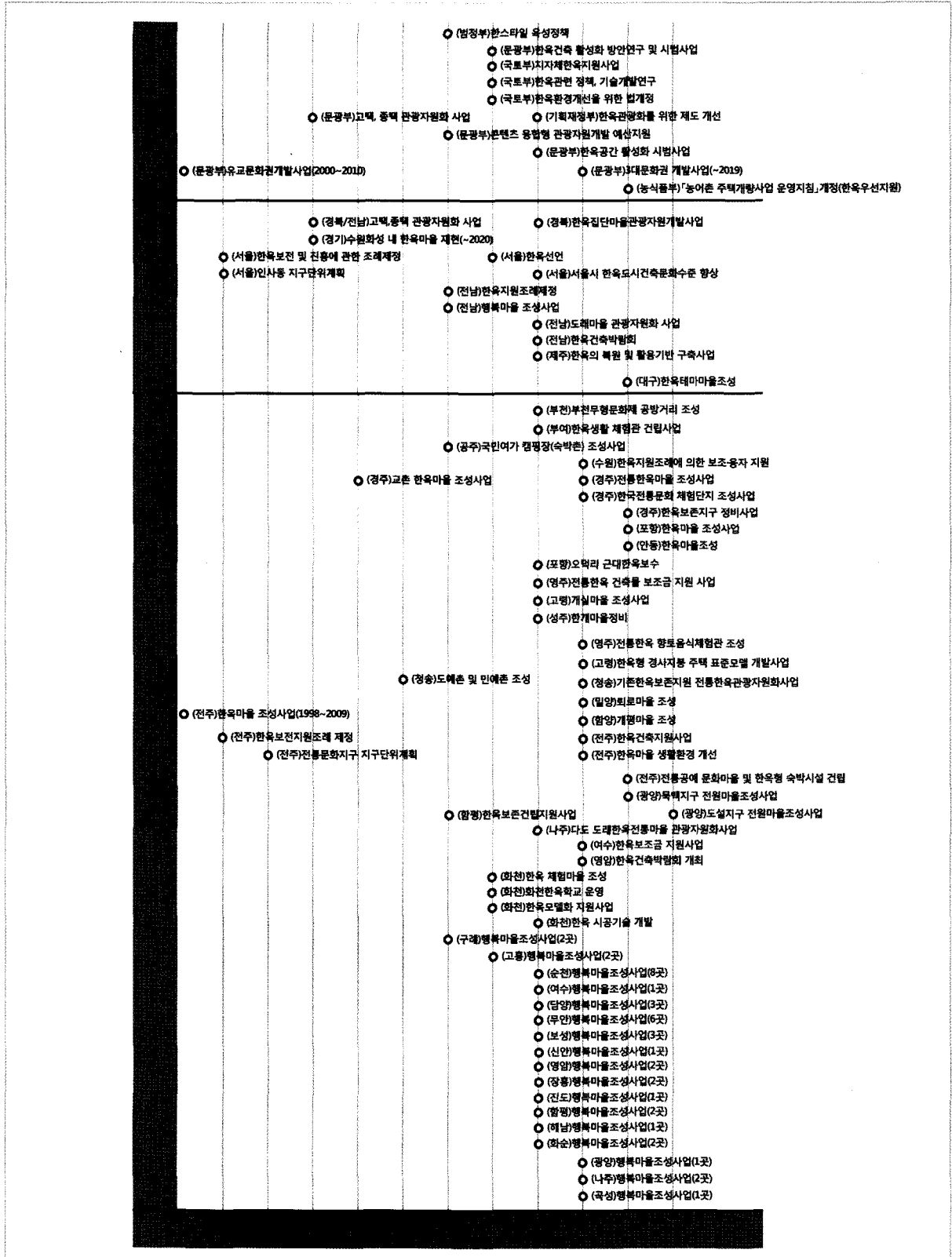
같은 시기 서울시는 청계천을 복원했다. 지난 건축·토목사업이 경제적 합리성, 산업과 유통의 효율성에 입각한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청계천

복원은 도시경관의 혁신과 문화적 상징의 개발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도시조직을 파괴하는 전면적인 재개발도 아니었다. 수십 년 전의 경관을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역사의 흔적을 드러내는 일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서울시는 북촌가꾸기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우연한 조건 아래서 한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던 북촌을 정비해서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사업이었다. 북촌의 한옥은 대단한 작품성을 지닌 건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촌가꾸기 사업의 성공은 근대기 부동산 자본에 의해 개발된 경사지의 평범한 기와집과 좁은 골목의 매력을 단숨에 한국 주거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부상시켰다. 더구나 한옥에 오피스, 아틀리에, 병원 등 새로운 기능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신선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실 한옥은 오랜 기간 주거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었다. 20세기 근대화의 기치 아래, 주거문화의 개선은 한옥을 탈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불편하고 낡았으며 전근대의 상징인 한옥은 낙후된 한국문화의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아파트가 한옥을 대체하면서 주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 [그림 1] 한옥 현재화를 위한 정부사업의 사례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택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농촌에서는 새마을 주택이 한옥을 대체하면서 경관을 일신했다. 아무도 한옥과 거주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한옥이 사회적·문화적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면서 당면한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한옥의 낭만적 흥취와 정서적 포근함은 아파트 중심의 갑갑하고 획일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한옥을 상점이나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이용된 것이 기존 한옥에 준 활력이라면,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귀농인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신한옥의 수요를 촉발시켰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한옥의 단점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옥 수요는 매우 낭만적이다. 즉, 산업이라고 할만한 공급체계가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한옥의 건축을 고려한 법체계가 정비된 것도 아니며, 현대식 설비와의 접점을 해결한 것도 아니다. 고급 한옥은 창의적인 건축가의 아이디어와 숨겨 좋은 장인의 기술로 멋진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서민들이 엄두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한옥에 살고싶다는 명제는 아직은 꿈에 더 가깝다.

그러나 어떤 지역들에서는 그 꿈이 실현되고 있기도 하다. 대개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정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비를 지원하고, 세제를 감해주는 일을 포함해서, 건축 단가를 낮추고, 성능을 개선하고, 장점을 홍보하는 역할을 다분히 국가기관에서 떠맡고 있다. 즉, 한옥문화 진흥의 초기단계에서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옥 사업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2. 한브랜드와 한스타일

한옥의 상품성에 대한 검토는 문화관광부 주도의 한브



▲ [그림 2] 2008년 한스타일 박람회 포스터

랜드화 사업에서 활성화되었다. 2005년 5월에 수립된 '한브랜드 지원전략'은 경제발전과 한류열풍 등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진단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같은 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신일본양식·브랜드 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네오 제패네스크(Neo Japaneseque)'를 국가 브랜드의 명칭으로 정했다. 이처럼 21세기 초 자국 전통 문화의 브랜드화는 하나의 세계적 트렌드로도 볼 수 있다.

한브랜드의 명칭은 '한스타일'로 결정되었다. 한스타일의 대상은 6개 분야, 즉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 음악이 선정되었다. 한스타일 사업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으나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리 고유문화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하여 세계적인 문화명품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 2월 15일에 발표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수록되었다.

'세계문화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 개척'이라는 정책비전에 따라 추진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은 모두 40개의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한옥에 5개의 과제가 할당되었다. ①전통 한옥건축의 보전·관리 및 활용 ②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③한옥건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④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⑤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이 그것이다.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옥관련 사업은 국어민족문화과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이다. 국어민족문화과에서는 2007년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한옥건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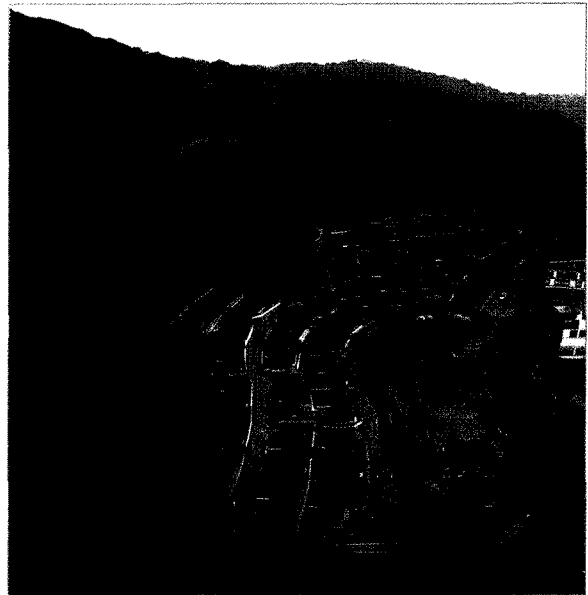
축 활성화 시범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옥건축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한옥 공공 건축물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리모델링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에 20개소가 접수되었고, 이 중 서울시 구로구 청소년 도서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군포시 산본도서관, 여주시 현암도서관이 선정되어, 각각 2억 원 씩 지원되었다.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짓거나, 실내에 한옥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은 한스타일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국가브랜드 위원회와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코리아 추진계획에서 재외공관의 국가브랜드 거점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총 156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주요 응접 공간을 전통 한옥, 한지 등 한국의 전통을 살린 품격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이에 더해 무형문화재 가구와 우수 미술품 및 전통 공예작품을 전시하여 한국적 공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07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저의 게스트룸과 유엔 한국대표부 건물에 전주한지 등으로 새단장된 바 있으며, 최근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사랑방이 한옥으로 지어져 찬사를 받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스타일의 확산을 위한 또 하나의 축은 기존의 한옥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이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에서 주도하고 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2000~2010), 고택·종택 관광자원화 사업(2004),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2007), 3대 문화권 개발사업(2010~2019)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기존 한옥에 숙박시설이나 체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식 설비를 지원해주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서울시 한옥선언과 전라남도 행복마을

2008년 12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촌문화센터에서 "서울 한옥선언"을 발표했다. 한옥에 관한 인식전환의



▲ 그림 3 서울시에서 2014년까지 조성키로 한 성북동 한옥마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한옥선언은 서울시 곳곳의 한옥 밀집 지역을 더 이상 노후한 개발대상지로 보지 않고, 가장 서울다운 정취가 있는 주거지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10년 간 총 3,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4대문 안 3,100동, 4대문 밖 1,400동 등 총 4,500동의 한옥을 보전 및 신규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옥선언에는 2000년부터 시작된 '북촌가꾸기 사업'의 성공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한옥주거지 보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북촌가꾸기 사업은 8년간 310동을 지원, 1,200동의 한옥을 보전하는데 성공한 프로젝트였다. 북촌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되었던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사업은 한옥의 개·보수 시 3천만원의 보조금과 2천만원의 용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한옥선언 이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을 인사동, 운현궁 주변,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확대했고, 지원액을 2배로 늘렸으며, 20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본격적인 한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북촌가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 [그림 4] 전남 장성 황룡행복마을 조감도

자금 3천만원이 지원되며, 마을공공기반시설에 3억 원이 지원된다. 연2회 공모를 통해 선정된 행복마을은 2010년까지 79개 마을, 1,032동이 건립되었으며, 2014년까지 200개소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옥마을 조성사업(1998~2005)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2006~2026)도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기존 한옥이 밀집

되어 있던 교동, 풍남동 일대를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멸실 위기의 한옥을 매입하여 적극적으로 보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한 이래 전주 한옥마을은 국제적인 명소로 탈바꿈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기존 한옥의 보전을 넘어서서 각종 전통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한스타일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한옥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라남도에서는 박준영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해 2004년부터 한옥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2005년에는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했고, 2006년 9월 행정지원국에 행복마을과를 신설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행복마을이란 귀농을 장려하고 이농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민소득을 늘리는 정책인데, 이 때 주거환경을 한옥으로 지정한 점이 특별하다.

행복마을은 기존의 마을내에 한옥을 집단화하여 12동 이상 신축하는 기존마을 정비형과 20세대 이상의 전원마을 사업지구 중 전세대가 한옥으로 건축되는 신규단지 조성형이 있다. 이 때 한옥의 신축에는 보조금 4천만원과 용

이밖에도 경주, 공주, 나주, 영암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 한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 만큼이나 기존의 역사문화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큰 축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결과이다. 다만, 지자체의 포부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직 부족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옥의 건축과 산업 육성에 관련된 법규도 미비한 상태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4.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

2010년 5월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옥 플랜”을 보고했다. 그간 추진되어 온 한옥 관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을 마련한 보고였다. 신한옥 플랜은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의 실현’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신한옥 플랜에 참여한 정부 부처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등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 한옥의 확산을 위해 큰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산림청에서 한옥 건축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더해져 한옥 진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와 협력하여 지역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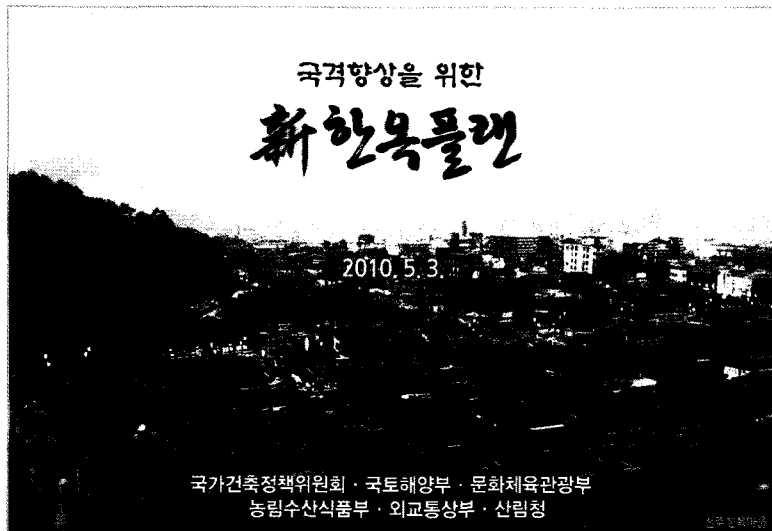
신한옥 플랜은 총 4가지의 실천방안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옥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업이 있다. 여기에는 농어촌에 한옥을 확산하기 위해 신축비용을 지원하고, 세제를 감면하며,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농어촌 뉴타운 일부에 한옥마을을 시범조성하며, 표준설계도서를 보급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 한옥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단지로 공급하고, 도시형, 고도(古都)형, 농·어촌형 등 입지유형별로 시범단지

를 조성하며, 한옥마을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계획이 있다.

두 번째 실천방안은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방안이다. 이중 민관 합동의 한옥기술개발(R&D) 사업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고 270억 원과 민자 9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에는 명지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수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현재 한옥을 건축할 때 소요되는 시공비는 3.3㎡당 약 1,000만원 가량인데, 이를 6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있다.

한옥기술개발 사업은 총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1세부는 시공기술에 관한 부분이다. 대량생산, 공기단축, 공사비절감, 시공성향상,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신공법을 개발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제이다. 2세부는 설계기술 부분이다. 한옥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최신 건축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세부는 성능기술 부분인데, 그간 춥고 불편하다고 인식되어 온 한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재·재료의 성능 강화와 방화·방재·방습·방습 등 주거성능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4세부는 이들 기술개발을 종합하여 DB로 구축하고 쉽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옥관련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연간 5,000채의 한옥이 건축되면 민간 업체의 자생력이 확보되고, 목조 시공 및 관련산업 분야에서 약 13,300개의 녹색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설계·시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전문적인 교육 뿐



▲ [그림 5]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 대통령보고자료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만 아니라 대학교육 커리큘럼에서 한옥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중에 있다. 2011년 국토해양부는 기존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옥 설계 과정을 개설하는 한옥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북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 과정을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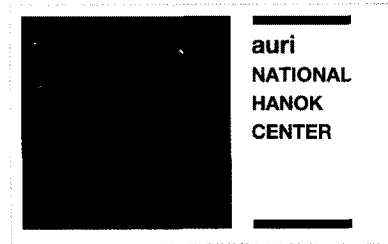
세 번째 실천방안은 한옥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멸실 위기에 놓인 한옥 주거지를 보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보전가치가 있는 양호한 한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한옥등록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등록한옥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강화하되, 지원을 받은 등록한옥의 임의철거 방지를 위해 한옥철거허가제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주택정비사업을 추진시 한옥밀집지역 등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보존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건축물 대장을 개선하거나 한옥등록대장을 도입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또 기존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한옥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네 번째 실천방안은 한옥의 적극적 활용에 관한 것이다. 먼저 한옥과 한옥마을을 관광자원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바라는 바이다.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새로 지은 한옥마을을 관광명소화 하는 작업은 현재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더해 공공건축물에 한옥을 도입하는 사업도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공공건물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사업이다.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한하우스 조성사업, 문화관광체육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이 성과를 얻고 있다.

5. 국가한옥센터의 설립

한옥관련 정부사업의 기획 및 관리 과정에서 싱크탱크

의 역할을 담당할 국가한옥센터가 2011년 5월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개소했다.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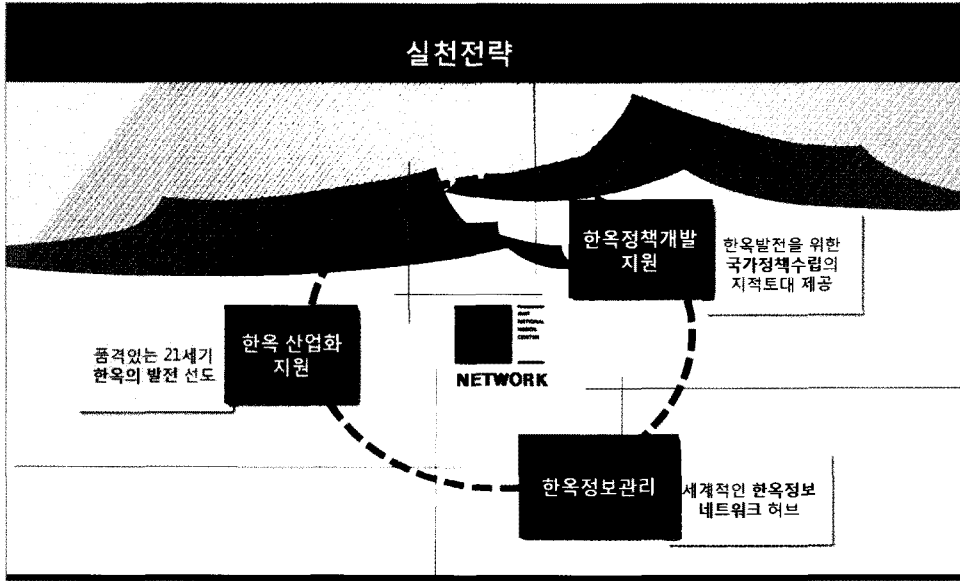
▲ [그림 6] 국가한옥센터 로고

한옥센터의 개소는 2010년 신한옥 플랜 대통령 보고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사업계획을 지원하고, 한옥 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하며, 한옥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07년부터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건축 연구’(2007~2008),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2008), ‘한옥활성화 실천방안 수립연구’(2010), ‘한옥의 환경성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2009~2010) 등을 수행해왔으며, 2010년에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지원사업’을 제안, 국무총리실로부터 예산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구성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가한옥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한옥센터의 실제 업무는 한옥정책개발지원, 한옥산업화지원, 한옥정보관리의 세 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옥정책개발지원 부문에서는 한옥의 가치를 발굴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 한옥의 보전 및 활용정책을 지원하는 연구, 현대 사회에 맞는 신한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두 번째, 한옥산업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는 한옥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 한옥기술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정부 및 지자체의 한옥관련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부문에서는 한옥정보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한옥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며, 각종 국내외 홍보를 기획하게 된다.

한옥디자인의 새로운 시각



▲ [그림 7] 국가한옥센터의 실천전략

이 모든 사업은 올 하반기 오픈할 예정인 가칭 국가한옥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특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옥기술 개발 R&D 사업의 성과가 곧바로 서비스될 예정이어서 한옥관련 신기술 보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2년부터는 전국단위 한옥 조사연구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 한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전국단위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가 없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옥정책 수립에 난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국가한옥센터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국단위 한옥통계와 현황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6. 2020 한옥르네상스 시대의 비전

지금까지 최근의 한옥관련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개괄해 보았다. 2010년 신한옥 플랜에서 국가 한옥관련 정책의 비전을 '2020년 한옥 르네상스의 실현'으로 구체화한 뒤 추진되고 있는 현재 사업들은 국가한옥센터의 단계별 성장전략과 같이 2013년까지를 기반조성기, 2016년까지를

도약기, 2019년까지를 성숙기로 설정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모처럼 다양한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 만큼 주목할만한 성과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 한옥 열풍을 만든 것은 정부 주도의 정책과 사업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옥의 장점을 발굴해서 소문을 내고, 멋진 공간을 설계해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것은 모두 민간에서의 업적이었다. 정부주도의 사업들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고조된 한옥 열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옥 문화 진흥의 초기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세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한옥르네상스 시대를 한층 앞당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신한옥 플랜이 순항하여 2020년이 되면, 한옥은 값이 싸지고 성능이 올라가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더불어 한옥의 매력으로 꼽히는 가치들, 즉 소통의 가치, 조화의 가치, 기억의 가치가 회복되어 주거에 관한 인식을 바꾸고 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즉, 한옥문화의 진흥은 정책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운동으로서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미래 주거의 비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